주 제

IT해외진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김선배

차 례

I. 세계 속의 IT Korea
II. IT해외진출 현황
III. IT해외진출 환경 변화
IV. IT해외진출 추진방향
V. 맺음말

I. 세계 속의 IT Korea

2005년은 세계 속의 IT Korea의 위상을 잘 보여준 한해였다. 2005년 11월 세계정보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f Information Society) 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 40개국의 평가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술인프라 부문 순위는 미국에 이어 2위(싱가폴 3위, 대만 5위, 일본 9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 고어는 "한국은 인류에게 활자와 디지털이라는 2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IT전시관을 방문한 각국 정상들은 IT Korea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제사회에서 IT Korea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는 현재 IT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도 무관치 않다. IT산업이 최근 3년간 IT산업의 수출액이 동 기간 동안 전체산업 총 수출액의 30%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IT Korea의 현재의 영광 만큼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 IT산업 공동화의 위기론이 심심찮게 거론되는가 하면, 고급 원천기술을 확보한 선진국과의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저임금, 빠른 기술습득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IT강국 거대 중국의 부상 등 후발국으로부터는 급속한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Nut-Cracker 상황을 맞고 있다. 이미 모바일 단말기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부상한 우리 IT는 시장에서 선진국 및 글로벌 IT기업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한때 효자산업으로 각광받던 PC 산업이 사양 산업화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미래 산업

으로 손꼽히고 있는 IT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의 IT해외진출의 현황, 위기와 기회 상황을 짚어본 후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IT해외진출 현황

1. IT수출현황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5년에는 수출 780.2억불(잠정), 수입 442.8억불을 달성하여 337.3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표 1〉 2005년 IT산업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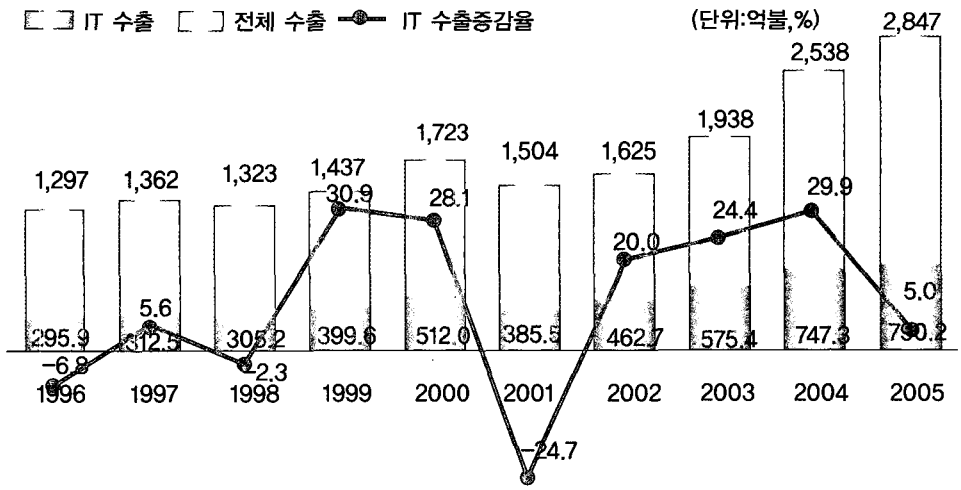
구 분	전체산업		IT산업	
	'04(1~2)	'05(1~12)	'04(1~12)	'05(1~12)
수 출	2,538.4 (31.0)	2,847 (12.2)	747.3 (29.9)	780.2 (5.0)
수 입	2,244.6 (25.5)	2,611.5 (16.3)	407.8 (12.1)	442.8 (8.8)
수 지	293.8	235.5	339.5	337.3

※ 자료 : 정보통신부

최근 10년간 IT수출은 1997년 300억불을 돌파한 이후, 2000년에는 400억불, 2003년에는 500억불, 2004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2006년 2006년에는 883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에는 IT수출 1000억불 시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수출대상국별로는 2005년에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IT수출시장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대 중국(홍콩 포함)의 수출 비중은 전체 IT수출의 32%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EU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2004년 125억불 정도이던 수출액이 2005년에는 137억불로 증가하면서, 동기간에 154억불에서 116억불로 하락한 미국시장을 제치고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 EU, 미국, 그리고, 대만, 일본, 싱가폴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고, 남미, 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 최근 10년간 IT산업 수출 추이

〈표 2〉 IT수출 주요지역별 실적

순위	지역(국가)	2005년		2004년	
		수출액(백만불)	비중(%)	수출액(백만불)	비중(%)
1	중국(홍콩)	24,934	31.96%	19,540	26.30%
2	EU	13,661	17.51%	12,529	16.86%
3	미국	11,631	14.91%	15,372	20.69%
4	대만	5,262	6.74%	4,895	6.59%
5	일본	4,863	6.23%	5,603	7.54%
6	싱가폴	3,900	5.00%	3,510	4.72%
7	남미	2,565	3.29%	2,309	3.11%
8	중동	1,637	2.10%	1,653	2.22%
소 계		68,453	87.74%	65,411	88.03%
총 수출액		78,018	100.00%	74,306	100.00%

※ 자료 : 정보통신부

품목별로 보면, 이동전화 단말기, 메모리 반도체, 액정모니터 등 주요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품목의 집중화 현상은 수출의 지역별 편중과 더불어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의 문제점이자 기회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수출 상위품목인 단말기, 메모리 반도체, 액정 모니터 등은 대표적인 대기업 품목이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중소IT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나 SW 분야의 수출이 아직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IT수출 품목별 실적

순위	지역(국가)	2005년		2004년	
		수출액(백만불)	비중(%)	수출액(백만불)	비중(%)
1	중국(홍콩)	24,934	31.96%	19,540	26.30%
1	이동전화단말기	24,646	31.59%	22,348	30.08%
2	메모리반도체	16,201	20.77%	16,288	21.92%
3	액정모니터	6,277	8.05%	6,751	9.09%
4	HDD	1,620	2.08%	1,087	1.46%
5	디지털TV	1,432	1.84%	1,598	2.15%
6	셋톱박스	740	0.95%	1,009	1.36%
7	광저장장치	425	0.54%	909	1.22%
8	프린터	259	0.33%	413	0.56%
9	이동전화시스템	251	0.32%	322	0.43%
10	노트북	203	0.26%	497	0.67%
소 계		52,054	66.72%	51,222	68.93%
총 수출액		78,018	100.00%	74,306	100.00%

※ 자료 : 정보통신부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이 아직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보력 부족으로 보인다. 기존 IT산업과는 달리 IT산업은 고도의 전문화된 분야로, 급속한 기술혁신을 특징으로 하며 기술과 시장 트렌드가 수시로 변화하여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IT기업의 경우에는 정보수집이 쉽지 않다. 지난 2004년 2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실시한 중소 IT기업 해외진출 애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수집을 큰 애로사항으로 적시한바 있다.

2. IT 투자유치 현황

IT분야 FDI는 2002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32억불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R&D센터의 적극적인 유치정책과 공장설립형(Greenfield) 대형투자 유치에 기인한다. 전체산업 FDI대비 IT분야 투자 비중은, 2001(18.3%) → 2002(6.9%) → 2003(15.6%) → 2004(25.1%) 등 최근 들어 지속적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산업 투자액	15,690	11,292	9,101	6,467	12,770
IT분야투자액	2,744(17.5%)	2,065(18.3%)	630(6.9%)	1,010(15.6%)	3,203(25.1%)
정보통신기기	1,865(67.9)	1,603(77.6)	402(64.0)	296(29.3)	2,812(87.8)
정보통신서비스	430(15.7)	297(14.4)	125((20.0)	513(50.8)	51(1.6)
S/W	500(16.4)	164(8.0)	103(16.0)	201(19.9)	340(10.6)

※ ( )는 전체산업 투자규모 대비 IT분야 비중

IT분야 FDI에서 핵심현안은 세계적 IT기업의 R&D 센터 유치이다. 정보통신부는 R&D 센터 유치를 통해 IT839관련 원천기술인 무선통신 관련 platform(Intel), telematics · Embeded S/W(IBM), Ubiquitous 통합네트워크(HP) 등을 확보하여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R&D 관련 투자확대 및 외국 연구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원들을 실력 있는 Architect로 양성하여 국가 R&D 인프라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동북아 IT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Intel 등 10개(2004년 5개, 2005년 5개)의 세계적 IT R&D센터를 유치하여 ETRI 등 국내 연구소와 RFID 등 첨단 IT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APCRC(Australian Photonics Cooperative Research Center), Caspian Net-works, Motorola, Oracle, TI, Lucent 등 세계 유수의 IT기업들과 한국 R&D 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에 있다.

〈표 5〉 R&D센터 유치현황

기업명	연구분야	비 고
Intel	Digital Home, 무선통신	2004.3.8 개소 (Intel사옥)
Fraunhofer IGD	가상 품평 · 시뮬레이션	2004.5.17 개소 (이화여대)
IBM	Telematics, Embedded S/W, RFID	2004.6.30 개소 (IBM사옥)
Siemens	네트워크 장비	2004.6.16 개소 (다산네트워크지분인수)
HP	RFID	2004.10.12 개소 (HP사옥)
Agilent	무선 RF모듈	2005.2.4 개소 (Wavics사 인수)
Microsoft	모바일 Device & Solution	2005.3.7 개소 (포스코빌딩)
Sun	모바일 S/W, 임베디드 S/W	2005.4.6 개소 (아셈타워)
On-Semi	Mobile Solution 및 부품개발	2005.5.17 개소 (On-semi 사옥)
AMD	각종 디지털 기기용 임베디드 프로세서 플랫폼	2005.12.5 개소 (AMD코리아 사옥)

※ 자료 : 정보통신부

III. IT해외진출 환경 변화

1. 글로벌 IT경쟁 심화

지금은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 그의 저서 <The World is Flat>에서 갈파했듯이 이른바 '평평한 세계'다. '평평한 세계'란 디지털 혁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동시적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해지고,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지식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동시에 경쟁하게 된 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평평한 세계'를 가능하게 한 IT는 그 자체로 가장 국제화된 산업 중의 하나이다. IT산업은 급속한 기술혁신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 고수익 · 고성장 산업으로, 기업들은 원가절감, 제품기술 개발능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IT가 대표적 차세대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IT산업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이 매우 지대할 수 밖에 없다. 세계 최대 IT강대국 미국은 R&D 투자, 인재 양성, 사회인프라 확충으로 첨단기술 강국의 입지를 공고화한다는 전략이다. '평평한 세계'의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이미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SW 강국 및 세계적 IT 아웃소싱 기지로 부상하였다.

특히,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FTA를 통한 지역경제 블럭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양자차원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IT표준을 둘러싼 통상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플랫폼(WIPI)을 상호접속기준으로 채택한다는 정책에 대해 WTO/TBT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여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ITU 등 IT관련 주요 국제기구는 이미 치열한 국가간 경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선진국은 국제기구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에게 자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국 기술의 표준화, 제품홍보 등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PEC과 같은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관심 아젠다에 대한 역내 합의를 우선 도출하여 전세계 차원의 협상 방향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특색이다. 예를 들면, I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QUAD(미국, 일본, EU, 캐나

다의 WTO 4대 회원국) 회담 → APEC → WTO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APEC TEL에서 'Advance Satellite Test-Bed Project'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국가의 인공위성 기술 활용을 권장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국가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초로 개발한 아날로그방식 HDTV의 국제표준 선정실패 등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이미 지난 2001년 5월에 '21세기를 향한 표준화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IT관련 논의가 정보격차해소를 중심으로, ITU 등 전통적인 IT관련 국제기구의 관심을 넘어서, UNDP, World Bank(DGF) 등 비IT 국제기구로까지 확산되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정보격차해소라는 의제는 2000년 도쿄선언과 2003년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주요이슈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은 ITU,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국의 수출증진과 IT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정책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국의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거대한 IT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국경없는 시대의 IT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지식 · 정보의 분산, R&D 프로젝트의 복잡 · 대형화 등으로 대표되는「R&D의 세계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각국은 다국적 기업의 R&D센터를 자국에 유치하여 고급두뇌 인력 확보와 첨단기술의 시험 및 상용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자국 내 유치한 해외 R&D 시설을 기반으로 해외의 제조시설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 산업과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범유럽 R&D 허브 역할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에 이미 약 1,300여개의 세계 유수 기업들이 약 16만 4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경제를 위해 연평균 119억 6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2.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이렇듯, 각 국가들이 통상협상,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유수의 글로벌 IT기업을 유치하여 자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IT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하면서, 글로벌 IT산업 국제분업 체제 재편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분업 체재의 개편에서 국가들은 최첨단 R&D 등 IT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IT839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국제분업 체제의 개편 와중에서 중국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IT산업 후발주자의 대표격으로 급부상중인 중국의 추격으로 국제 IT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8%대의 성장률을 기록중이며, 향후 IT산업 성장률을 20 ~ 30%로 유지하여 2010년에는 최대의 기간산업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IT수출규모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해, 2001년도 650억불에서, 2004년에는 2,075억불(한국 747억불)을 달성한 바 있다.

더구나, 중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국제분업체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립생산 기지로서의 기존 중국의 역할을 넘어서 첨단 R&D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중국과 한국의 IT 기술격차는 최근 급격히 좁혀져서, 현재 추세 등을 고려하면 2008년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기업간 IT업종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종합	제품설계	소재관련	부품관련	조립가공	공정관리	개발속도	격차
일 본	117%	121%	112%	119%	121%	117%	120%	2.57년
중 국	88%	83%	93%	92%	93%	91%	108%	-2.05년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1

중국은 2004년에는 세계 1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606억불)하였으며, R&D FDI는 IT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IT 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보고서(2005.12)는 2004년 6월까지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약 700개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는 특히 IT산업에서 두드러졌다고 소개했다. Motorola는 2004년까지 중국에 15개의 R&D 센터를 세웠으며 Microsoft, Nokia, GE, IBM, Siemens, Nortel 등도 R&D관련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가 최초로 중국에 설립된 연도는 1993년이며 대부분은 최근에 생긴 것임을 감안하면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R&D 관련 FDI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이 단순 생산하청기지가 아닌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잠재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는 큰 위협요인이다.

특히 오는 2010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IT산업의 질적 도약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경제 부상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 및 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DMB, WiBro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첨단 IT분야 해외진출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주변국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중국은 북한 IT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있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차세대 협력파트너이자 시장으로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 최첨단 IT 중심의 기술혁명 시대 도래

이렇듯 IT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IT의 기술혁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IT의 눈부신 발전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디지털 컨버전스를 들 수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디지털 기술기반의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 '정보 융합', 방송 · 통신 ·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 · 통신 · 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등 3대 축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DMB 폰은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는 IT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간 컨버전스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는 '산업컨버전스 시대가 열린다'는 보고서(2005. 6)를 통해 IT산업을 중심으로 방송, 미디어 산업 등과 진행되어 온 컨버전스가 최근 IT산업을 축으로 자동차, 화학/소재, 기계장비, 우주항공, 유통, 금융 등 전체 산업군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지금은 기존 산업 내 경쟁에서 IT를 매개로 한 각 산업간 상호진입이 활발해 지면서 산업을 초월한 비즈니스 모델간 경쟁, 표준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전환기 시점인 것이다.

〈표 7〉 산업간 컨버전스를 통한 유망 신사업기회

구 분	산 업	산업간 컨버전스를 통한 유망 사업
IT와 융합화되는 산업	방송·미디어	VOD서비스, IPTV, 웹캐스팅, DMB, 모바일 방송
	컨텐츠	모바일 게임, 위치기반서비스, DRM, 모바일 CP 등
H/W 구조변화가 나타나는 산업	자동차	텔레매틱스 단말/서비스, 자동차용반도체, ITS 등
	화학·소재	웨어러블 컴퓨터, 3D 디스플레이, 차세대 스토리지 등
	기계장비	SMART시스템, 지능형 로봇, 마이크로 로봇 등
	유통	T-Commerce, 홈쇼핑, M-Commerce, 유무선 통합 쇼핑몰 등
온라인화가 촉진되는 산업	금융	모바일 뱅킹, 스마트카드 서비스 등
	보건의료	가정용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원격건강모니터링서비스 등

자료 : LG경제연구소, 2005.6.

한국전산원은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로, 인간+기계, 사물+사물간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컨버전스로 표방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예측한다('디지털 컨버전스로 나타나는 유비쿼터스사회', 2005.9). 특히, 세계 유비쿼터스 관련시장은 '03년 443조원에서 '15년 1,640조원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향후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컨버전스, 산업간컨버전스,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막 등 향후 전개될 IT의 미래상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큰 장점은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토대로 최적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고, 이동단말, 가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 인터넷의 발달로 홈네트워크나 로봇산업 등에 유리한 사용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IT839와 같은 정책을 입안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등 정책적 지원의 지도 강력하다. 이런 측면은 IT와 산업간 컨버전스가 창출할 새로운 blue ocean을 새로운 제품, Life style와 문화양식, 각종 제도·규범 등의 측면에서 세계 각국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에 도입,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품 및 기술, Life style, 문화 등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FTA, WTO 등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유비쿼터스 산업은 지금까지처럼 첨단 이동통신단말기나, 반도체 등으로 치우쳐 있는 현 단계 우리 IT수출을 넘어, 개별 산업군별 전체로 다양한 이종 서비스산업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문화양식이 녹아 있는 디지털 콘텐츠 등 IT를 넘어 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는 총체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한류 열풍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제2의 디지털 한류 열풍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IT해외진출 추진방향

1. IT839 글로벌화 적극 추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IT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손실과 아픔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첨단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IT산업 생태계를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제분업의 가치사슬에서 보다 상위의 고부가가치 분야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IT를 중심으로 한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의 미래 최첨단 Blue Ocean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투자대비 잠재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선진 글로벌 IT기업의 R&D 센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전략적 공

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IT839 전략은 IT산업 value chain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외 유수 연구소, IT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IT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IT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치열한 국제기구 및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ITU 등 국제기구를 통한 IT839 표준화 활동 및 정보격차해소 활동, CJK · KANZ IT장관회의 등의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IT839전략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IT839전략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12월 국제전기전자학회(IEEE)가 모바일 와이맥스(802.16e)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함에 따라, WiBro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제 내년 4월 상용화를 거쳐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DMB는 2006년부터 급속한 수출신장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연간 140억불의 단말을 해외로 수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005년 1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10대 히트상품으로, DMB 폰을 3위에 선정하면서 '디지털 생활양식'이 일상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DMB 폰은 첨단 IT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생활양식'이 창출할 거대한 Blue Ocean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표 9〉 DMB단말 해외수출 전망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대수(천대)	74	2,052	9,199	23,773	36,838	49,542
수출액(백만불)	32	571	2,760	7,150	10,236	13,949

※ 자료 : ETRI, 2005. 2

2. 미래시장 선점 활동 강화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이를 목표로 하는 우리 IT산업은 더 이상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 개입자의 입장에서 기술개발, 표준선점, 생산, 해외마케팅에서 이르는 제 단계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IT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및 잠재력을 감안하면 IT산업의 독특한 가치사슬과 해외진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첨단 IT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IT839 전략의 핵심인 서비스 ~ 인프라 ~ 성장동력 간 가치사슬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해외진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8〉 IT839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8대 신규서비스	3대 첨단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및 세계시장 점유목표('07)	
WiBro 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20%, 단말 30%
DMB 서비스		디지털 TV · 방송	27%
홈 네트워크 서비스		홈 네트워크	11.5%
텔레매틱스 서비스		IT SOC	10%
RFID활용 서비스	u-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PC	10%
W-CDMA 서비스		임베디드 SW	6.7%
지상파 DTV		SW,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게임 세계1위
인터넷전화(VoIP)	IPv6	텔레매틱스	9.6%
		지능형 서비스 로봇	20%

※ 자료 : 정보통신부

즉,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 및 차세대 인프라를 국제표준 선점과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확산시킨 다음, 차세대 PC 등 신규 단말과 SW, 디지털 콘텐츠 등을 해당국에 수출하는 전략이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부터는 DMB, WiBro 등 최첨단IT 기술분야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한다. WiBro, DMB 등 최첨단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국가간 정책적 협의과정이 우선관건이 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TOP DOWN 방식으로 민관합동의 IT협력단 구성 등을 주도하여 치밀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기업, 제품, 콘텐츠 사업자 들이 IT가치사슬에 따라 시장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첨단 IT제품의 경우 초기상품에 대다수 소비자들이 Lock-in되고, 표준으로 확정되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거의 곤란한 바, 우리의 최첨단 IT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향후 3-5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업컨버전스 시대에는 First Mover Advantage(선발자 이점)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증대되어 Fast Follower(빠른 추종자) 전략의 유효성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시장 선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진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MB나 휴대인터넷이 주도하는 모바일 컨버전스 국면에서는 기존의 PC, 네트워크, 시스템 중심으로 전개되던 IT산업도 모바일 방송, 게임, 교육, 의료 등에 사용되는 휴대기기용 컨텐츠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영상, 웹정보,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향후 모바일 및 교육용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2005년에는 1,700억불 정도였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2,500억불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한류 열풍을 잘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 우리 IT life style의 전파를 통해 '디지털 한류' 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세계 최대의 IT시장 미국, 아시아 최대 IT강국 일본에 대한 IT수출 집중 현상은 해당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필연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IT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미국, 일본 등 이미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시장 이외에, 현재 시장은 크지 않지만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에 미리 진출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BRICs론이 주목받으면서, 브라질 등 중남미, 인도 등 서남아시아, 러시아 및 CIS 등이 향후 중국 시장 못지 않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시장들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진출이 중요함에도 우리 IT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부분이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IT수출 최일선에 있는 기업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고급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시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bottom-up)하고, 해당국별 시장현황 및 품목별 전략, 상호협력분야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들 미래시장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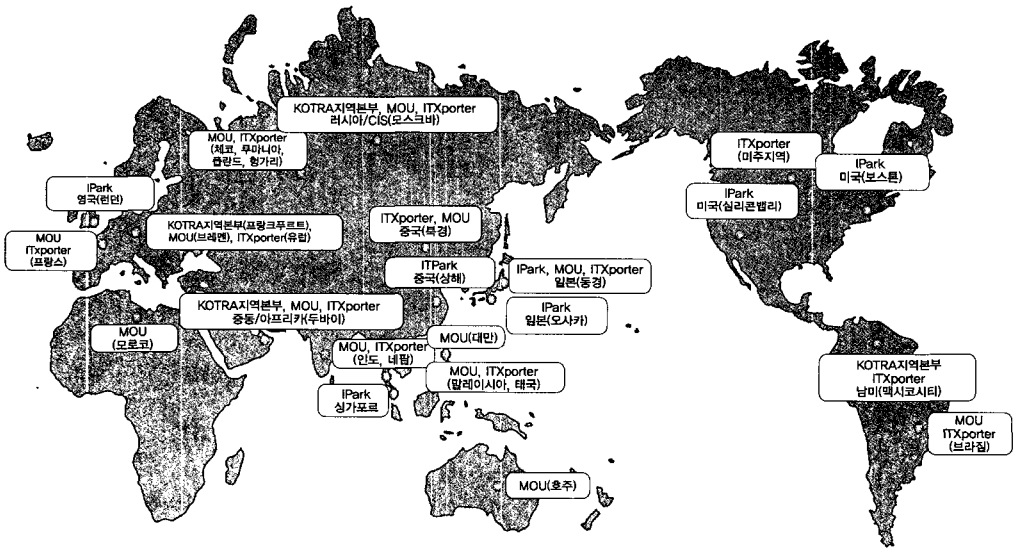
한편, 미래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2005년 12월, 개성공단과 통신이 개통되면서 남북간 협력단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북한은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뿐만 아니라, IT 미래시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즉,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인력(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하고, 북한의 시장을

남한 자본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는 전략이다. 앞서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영향력 및 현재의 IT투자 등을 감안하면, 미래시장이자 중요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IT839 전략의 글로벌화, 품목별 · 국가별 미래시장 선점 등 전세계적 차원에서 해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 활용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 KOTRA 등 국내 해외진출 유관기관 및 해외 IT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는 설립초기부터 이 점에 주목하여 현재 19개국 24개 IT관련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활발한 협력중에 있으며 우리 IT해외마케팅에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IT해외진출 협력파트너사(ITXporter)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IT특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체계와 전략, 글로벌 네트워크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IT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특히 정보통신부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8개 해외 IT지원센터(iPark)의 사업 및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여 최첨단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진흥원 설립을 통해 IT839 성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협력, 해외진출을 통해 가시화하는 한편, 미래 IT 중심의 컨버전스 시대에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IT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핵심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BT, NT, CT 등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전담기관들 간에도 각자의 전



(그림 2) IT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문성 위에서 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다.

V. 맺음말

CDMA 상용화에서 T-DMB, WiBro 국제표준 채택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발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IT산업은 급격한 후발국의 추격과 국제 분업 국면 속에서 자칫 IT강국 Korea의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창출될 유비쿼터스 시대의 거대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해 내고 차세대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질 IT산업의 중요성과 해외진출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IT839를 비롯한 IT산업의 전면적 글로벌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IT KOREA를 통한 국가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내에서 IT해외진출 체계정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간,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IT중심의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에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체계와 구심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IT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선배

1969년 ~ 1973년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89년 ~ 1991년 미국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5년 ~ 1977년 한국 외환은행 입행
1978년 ~ 1986년 현대건설
1986년 ~ 1993년 현대증권 국제부장, 뉴욕사무소장 역임
1993년 ~ 2004년 현대정보기술 기획실장, 현대정보기술 경영지원본부장, 현대정보기술 금융사업본부장 이사, 현대정보기술 COO(Chief Operating Officer) 전무이사,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사장 역임
2001년 ~ 2002년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2002년 ~ 현재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 이사장
2003년 ~ 2004년 제8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2005년 ~ 현재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